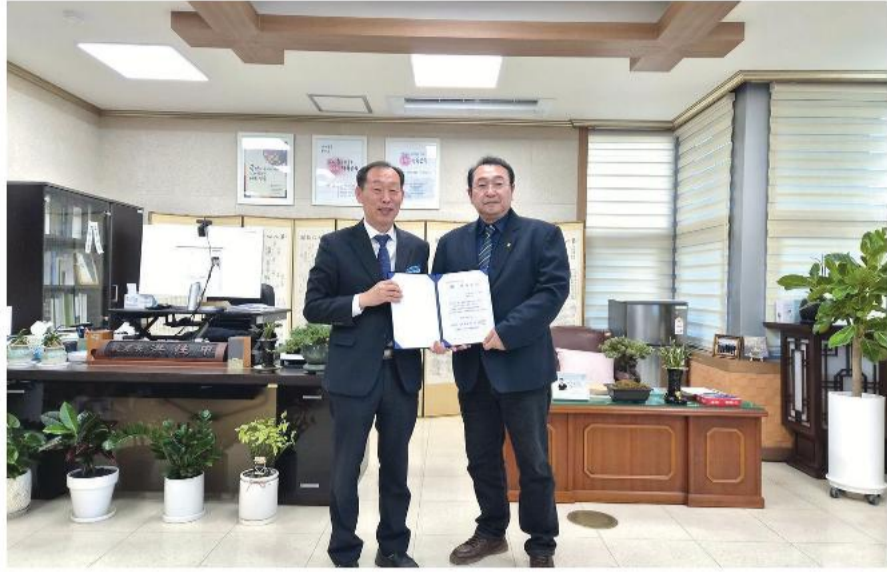


안동권씨능곡회, 안동교육지원청에 장학금 100만원 기탁



안동권씨능곡회(회장 권기섭)는 3월 25일(수)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해 안동교육지원청(교육장 홍성중)에 장학금 100만원을 전달했다. 장학금은 능곡회 이름으로 안동 관내 중학생 1명을 선발하여 전달됐다.

안동권씨능곡회 권기섭 회장은 “능곡회는 1986년 창립된 단체로, 40년 역사에서 사회봉사로의 첫발을 내딛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고 말하고, 앞으로 도 지역민들과 함께 살아가는 ‘같이의 가치’를 실천하며 화합하고 발전하는 능곡회로 거듭나기를 바라며 도움을 주신

모든 능곡회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한다”고 말했다.

안동교육지원청 홍성중 교육장은 감사의 뜻을 전하며, “지역 학생들을 위한 따뜻한 관심과 나눔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번 장학금이 학생에게는 큰 격려와 희망이 되고, 지역사회에는 인재 육성의 소중한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안동권씨능곡회는 회원 간 친목 도모와 함께 춘추 향사, 보학강좌, 체육대회, 유적지 탐방 등 다양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권순익 능곡회 사무국장

순국선열 막난(莫難) 권오설(權五高) 선생 96주기 추념식 거행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참석



순국선열 권오설 선생 96주기 추념식 기념



항일 구국열사 권오설 선생 기적비 답사

사단법인 권오설 권오상기념사업회는 지난 4월 17일(금) 오전 11시 경북 안동시 풍천면 가곡리 가일마을 권오설 선생 묘소에서 순국 96주기 추념식을 거행하였다. 이 자리에는 권오을 국가보훈부장관, 배용수 안동시장, 권관대행, 기념사업회 이준식 이사장을 비롯하여 권오설 권오상 선생 유족과 가일마을 북야공파 참의공 종중의 권중만 종손을 비롯한 중종 관계자와 지역 시민 등이 함께 참석하여 선생의 숭고한 항일독립 정신을 기리고 추모하였다.

막난(莫難) 권오설(權五高 1897~1930) 선생은 이곳 가일마을에서 태어난 일제강점기 항일독립운동가로서 짧은 생애를 살았지만, 노동·운동과 계몽·교육 운동을 활발히 펼쳤으며 특히 1926년 6.10만세 운동을 기획하고 주도하였다. 이로 인하여 거사 사흘 전인 6월 7일 일제에 체포되어 혹독한 고문을 당하였으며 수감 중 1930년 4월 17일 서대문형무소에서 출소를 100일 앞두고 고문 후유증으로 순국하였다. 서거 후에도 선생의 영향력을 두려워한 일제의 강압과 감시 속에 철제관에 갇힌 채 묻혀 있었던 사실이 2008년 묘소 이장 과정에서 밝혀지기도 했다. 서거 71년이 되는 2001년에 되어서

야 가일마을 입구에 “항일구국열사 권오설 선생 기적비”가 건립되었으며, 2005년에는 건국훈장 독립장이 추서되었다.

올해 추념식은 특히 6.10만세 운동 100주년을 맞이하여 권오상 권오설기념사업회가 주최하고 6.10만세 운동 100주년 기념사업추진단이 주관하였으며 안동시와 항일연합이 후원하면서 선생 서거 후 96년 만에 제대로 된 추념식을 거행하게 되어 그 의미가 더욱 뜻깊었다. 추념식을 마친 뒤 참가자들은 가일마을 입구에 세워져 있는 권오설 선생 기적비와 마을 안의 생가터 그리고 권오상 선생의 생가인 수곡 고택을 답사하면서 그 발자취를 찾아보고 선열들의 숭고한 정신의 뜻을 기렸다.

권오상(權五尙 1900~1928) 선생은 6.10 만세 운동 당시 연희전문학교에 재학 중 학생 조직을 이끌면서 6월 10일 당일 격문을 살포하고 독립 만세를 부르면서 만세 운동을 주도적으로 전개하였다. 이 사건으로 체포되어 서대문형무소에서 복역하였다. 복역 중 심한 고문의 후유증으로 풀려났으나 고문의 여독으로 1928년 6월 3일 서거하였으며 2005년 건국훈장 애족장이 추서되었다.

권순갑 가일마을 북야공파 37세

부산 부녀회 제34차 정기총회 개최



부산 부녀회 동권씨 부산 부녀회

수) 18:30 장소 | 해암뷔페 & 4월 8일(수) 18:30 장소 | 해암뷔페



권영희 회장



권영희신임 회장

부산총회회 산하 부녀회(회장 권영희)는 지난 4월 8일(수) 연산동 해암뷔페에서 제34차 정기총회를 개최하였다. 총회는 송산 권영현 부산총회회장을 비롯한 부산 원로 어르신들과 각급 단체장, 부녀회원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먼저 국민의례와 시조님께 명배 후 내빈 소개가 있었으며 시상 순서로 이어졌다. 시상은 이번 정기총회로 퇴임하는 권영희 회장과 권정자 총무에 대한 공로상과 함께 회원 15명에 대한 개근상으로 정반 세트 선물을 수여하고, 아울러 올해 팔순을 맞은 권경남 회원과 칠순인 설화숙, 권정희, 권태숙 회원에게 생일케이크로 축하와 함께 금일봉을 전달하였다.

이어진 인사사에서 권영희 회장은 우리 부녀회 정기총회에 축하와 격려와 주신 영현 총회회장을 비롯한 원로 어르신과 단체 대표님들께 경의를 표하고, 재임 중 성심성의껏 따라온 회원들께도 감사 인사를 전하였다. 또한 “원로 어르신과 여러분의 도움으로 총무 4년, 회장 2년의 임기를 잘 마쳐 무척 고맙고 다행스럽다.”며, “앞으로 다양한 출중을 표하는 한편, 부산부녀회의 개근상 제도, 칠·팔순 축하 케이크 등은 다른 단체에도 권장해 볼 생각임을 피력하였다. (사)씨씨연합회 총재인 송계(길상) 고문은 격려사에서 그 동안 정회 회장과 생자 총무

가 너무 잘해 주셔서 고맙다며, 그간의 노고에 대한 감사의 박수를 유도하자 우레와 같은 박수가 쏟아졌다. 또한, 후임 영희 회장과 김복선 총무도 더 잘해 줄 것으로 믿는다며 기대감을 표하였으며, 원광(영호) 대총회 수석 부회장도 대총회에서 인정받고 전국에 소문난 부산부녀회는 부산총회의 자랑이자 긍지라 치하하고, 그간 잘 이끌어 준 정회 회장과 앞으로 고생해 줄 신임 영희 회장에 격려와 응원을 보낸다는 인사말을 하였다.

계속된 총회는 경과보고, 감사 보고, 결산 보고 토의 사항으로 이어졌으며, 임원 선출 순서는 내정된 임원진을 소개하는 것으로 대신하였다. 먼저 취임사에 나선 신임 권영희 회장은 “중책을 맡긴 것은 농평이를 친져를 잘 나오라는 뜻이라 믿고 앞으로 열심히 하겠다.”는 각오를 밝히면서 “총회회 어르신과 임원 여러분께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고 인사하였다. 아울러 “흔쾌히 초대에 응해 특별 연주로 행사를 빛내 주신 교육계 후배인 오세원 (주)삼양마린 회장님(색소폰 연주)과 세계도덕재무장 이태재 부산분부장님(대금 연주)께 감사드립니다.”는 인사 후, 앞으로 안개꽃처럼 총회와 부녀회원을 돋보이게 하는 회장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것을 다짐하였다. 더불어 부회장, 감사, 총무, 부총무의 자기소개가 있었으며, 마지막 순서로 부녀회와 함께 권문의 노래 제창에 이어 권순진 친동회장 선장으로 만세삼장을 부른 뒤 정기총회를 마무리하였다.

특히 퇴임하는 정회 회장의 부군 이양규 선생과 신임 영희 회장의 자제 류동훈 부산 일광학교 선생 등 가족이 함께하여 더욱 뜻깊은 정기총회가 되었으며, 총회 후에는 모두 뷔페 만찬으로 친목을 다지는 유익한 시간을 가졌다. 권재영 부산 사무국장

권오훈 안동권씨종보사 대표 서세逝世를 애도함 안동권문 족보族譜에 해박한 전문가를 잃다

권오훈權五勳 (안동권씨종보사 대표이사)가 3월 29일(음력 2월 11일) 서울 은평구 음암동 자택에서 향년 87세로 별세하였다. 공은 안동권씨 추밀공파 시조 후 35세로 1940년 5월 충남 서천군 문산면 신봉리에서 출생하여 군산에서 초·중·고교를 졸업하였다. 20세를 넘어 서울로 와서 30여 년 연구실과 출판사에 종사하다가 도서출판 해돋이 사장과 안동권씨종보사 《능동춘추(陵洞春秋)》 편집인 겸 발행인과 대동회 문헌편찬위원장을 지낸 입지전적 인분이다.



통권 제157호 발행하였으며, 안동권문의 족보族譜에 전문가이다.

나는 고인과 인연이 깊다.

2006년 능동춘추 주간인 고향 권기봉權琪奉 초대부 소개로 처음 만난 후 능동춘추 편집위원으로 2006년 8월 《화염공花陰公 양謙선조와 악견산성》으로부터 2014년 6월 《살기 좋은 우리나라》까지 능동춘추 종설宗說과 능동陵洞잡담을 기고하였다. 그리고 2010년 나의 고회집인 ‘고회古稀에 이른 한 베테랑의 독백’ 《해나루 그늘의 노병》을 제목부터 편집까지 맡아 도서출판 해돋이에서 출판해 주셨다.

서거 할 달 전에도 종보 관련 종친 인사들과 교대여 부근 일 정식집에서 오찬 모임을 갖고 여러 환담歡談을 나누었는데, 인생이 이렇게 허무한 줄 몰랐다. 오호嗚呼 인사人事가 해로무상薙露無常이라, 하나 이를 어찌 믿을 것인가? 공의 신후身後地인 고향 충남 서산군 시조촌 초현리 선영에 고이 잠드신 고인의 명복冥福을 빈다.

2026년 4월 족예族裔 권해조 곡판 哭挽

공의 호號는 소옹膏鴻·필명재彌雲齋이고 필명은 권광욱權光旭이다. 1981년 중앙일보 《문예중앙 신인문학상文藝中央 新人文學賞》에 당선되어 문단에 등단한 후 5-6편의 단편소설을 발표하였다. 주요 저서로는 장편소설 《터잡이》, 《한자漢字도 우리글》, 《권애라와 김시현》, 안동권씨 1천년사 영가연행록永嘉言行錄 3권, 육례 이야기 3권, 안동권씨 추밀공실기樞密公實記, 안동권씨 태사공실기太師公實記 2권 등과 역서로 태극용전太極翁傳, 응제시집주應制詩集註와 한글판 전서 안동권씨 대동세보大同世譜 33권 등이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종보사 능동춘추 발행인 겸 편집인으로 1999년 1월 창간호부터 2014년 6월

충견총(忠犬塚)



추밀공파 익평공 종중회 회장 순봉

조선(朝鮮) 초기 반상(班常; 양반과 상민)의 구분이 엄격한 전제군주 봉건시대에, 일인지하 만인지상(一人之下 萬人之上)의 좌의정을 역임한 정승이 집안의 개를 평소 아끼며 애육하였는데 이 개는 주인이 위급하여지자 살신구주(殺身救主)하고, 주인은 개에게 생존 시 충견(忠犬)·의견(義犬)으로 받들게 하고 사후에는 충견총(忠犬塚; 충성스러운 개 무덤)을 만들게 하였다. 노비(奴婢)에게도 인간 대우로 인과응보(因果應報)한, 조선 초기 한 정승 가문의 三代에 걸친 남다른 박애사상(博愛思想)은, 오늘날 은혜를 원수로 갚고, 자식이 부모를 살해하는 등 도덕 불감증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스스로 반성할 수 있는 좋은 본보기가 될 것으로 생각되어 충효의 달 5월을 맞이하여 소개하고자 한다.

때는 세조 9년(1464년) 좌의정(左議政) 벼슬에서 물러난 소한당(所閑堂) 권람(權攀; 1419~1465), 문충공 양촌 권근(文忠公 陽村 權近의 손자)이 한양 남산 아래 후조담(後澗堂)에서 은둔

생활을 하던 어느 화창한 봄날, 친지의 상춘연(賞春宴)에 초청되어 봄의 정취를 만끽하고, 귀가 도중 길옆 잔디밭에 앉아 퇴임 후 모처럼 한가로이 봄벌을 쪼며 춘경(春景)에 도취하여 무아(無我)의 삼매경(三昧境)에 빠져 잠깐 잠이 들게 되었다.

이때, 파가온 봄벌이 발랄로 연결되어 온 들뜬이 들뜬로 번지고 있었으나, 공은 이 사실을 까맣게 모른 채, 춘몽(春夢)에 빠져 들게 되었다. 들뜬은 봄바람을 타고 마른풀과 나무를 태우고, 점점 거칠어지며 공이 잠든 곳을 향해 돌진(突進)하고 있었다. 공은 코를 골며 깊은 춘몽에 빠져들자 공이 데리고 갔던 개는 공의 주변을 맴돌며 공을 깨우기 위하여 공명거리며 몸부림쳤으나 일어날 줄 몰랐다. 개는 더는 다른 방도가 없음을 깨닫고 허겁지겁 개울로 달려가 자신의 몸에 물을 적셔, 공의 주변에 불이 번지지 못하도록 방화선을 구축하느라 온몸에 화상을 입고 마침내 쓰러져 신음을 내며 사경을 헤매게 되었다.

이때 비로소 공께서는 개의 신음과 매개한 연기와 열기에 깜짝 놀라 잠에서 깨어나 보니, 온통 들뜬은 불길로 휩싸여 있고 데리고 갔던 개는 온몸에 화상을 입고, 공의 옆에서 쓰러져 죽어가고 있음을 발견하는 순간 “이놈이 나를 구하고 죽어가는구나!” 하며 장탄식을 하는 순간 가슴을 저미어 오는 아픔과 연민(憐憫)의 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개를 안고 흐느껴 울고 말았다. 이때, 개는 점점 맥이 빠지고 신음마저 약해짐을 느낀 공은 충견(忠犬)

을 안고 집으로 달려가, 식솔들에게 개가 자신의 생명을 구한 사실을 알리고, 공께서 순수 지성으로 치료하고 보살피 상처를 안치시킨 후 온갖 사랑을 베풀며 보응(報應) 하였다. 공은 그해 겨울 지병이 점점 악화하자 목숨이 다한 것을 직감하고 장남 권(傑; 1447~1485년)에 이르기를 “이 개는 살신구주(殺身救主)한 의로운 개(義犬)인바 잘 대접하고 내가 세상을 먼저 떠난 후 義犬이 죽거든 내 무덤 받치(근처)에 묻어 준 후, 나의 묘제(墓祭) 시 지손들은 義犬이 평소 좋아하던, 기름 떡, 술, 맑은 물을 의견총(義犬塚)에 제수(祭需)로 받쳐 義犬의 넋을 달래주고 응보하라”는 훈유(訓諭)를 하셨다.

공이 이듬해인 1465년(세조 10년) 2월, 지병으로 세상을 하직하자 기이하게도, 忠犬 역시 눈물을 흘리며 식음을 전폐하고 마침내 공을 따라 굶어서 순사(殉死) 하자, 공의 가족들은 忠犬 시신을 공의 빈소(殯所) 가까이 안치하였다.

그해 4월 음성군 생곡면 방축리 산 7번지 소재 능안 선영에 공을 안장 시, 공의 유훈(遺訓)에 따라 공의 산소와 마주하는 건너편 언덕에 순장(殉葬) 후, 100X75X18cm 상석(床石) 위에 30X7.5X3cm 개받그릇과 물그릇을 9cm 깊이로 정교하게 제작해 놓고 지금도 후손들이 충직한 개의 넋을 기리고 있으며, 우리 安東 權門의 후세들은 이 개의 무덤을 충견총(忠犬塚)이라 부르고 있다.

